

# 산티아고처럼... 신안에 '기적의 순례길' 조성

### 기점·소악도에 '건축미술' 형식 12개 작은 예배당 설치 11월 개방... 게스트하우스·식당 등 주민소득 연계 사업도

신안군이 섬을 잇는 노퍽길을 따라 스페인 산티아고 만 큼이나 아름다운 기적의 순례길을 조성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기점·소악도의 작은 예배당과 순례자의 길'이 추진된다. 주민 100여 명이 거주하는 기점·소악도는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보고, 요한 등 곳곳에 예수의 12사도 이름을 딴 작은 예배당이 설치되고, 12km 순례자의 길이 조성된다. '기적의 순례길'로 불리는 이 길에는 약 1km마다 한개씩의 건축미술(예배당)이 자리하게 된다. 순례길을 따라 걸으면서 만나는 열 두개의 작은 예배당을 찾아가는 섬 여행길이 이 사업의 콘셉트다. 주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열 두개의 작은 예배당 프로젝트에는 모두 11명의 공공조각과 설치미술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강영민, 김강, 김운환, 박영균, 손민아, 이원석 작가가 참여했다. 해외작가로는 장 미셸 후비오·브루노 프루네(프랑스), 파코(스페인), 아르민디스(포르투갈), 에스피 38(독일) 등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축미술' 형태의 이 작품들은 노퍽길에, 숲속에, 언덕에, 호수 위에, 마을 입구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그리스 산토리니의 성당을 닮은 것도 있고 프랑스의 몽셀 미엘의 교회를 닮았거나 러시아 정교회의 둥근 모양 등 제각각 독특해서 두 평 이하의 작은 예배당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현재 시작하지 않은 2개를 제외한 10개의 건축물은 내달 말 완공될 예정이다. 오는 11월말이면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은 기점·소악도 순례길 사업을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방침이다. 주민들은 지난 2018년 마을법인을 결성했다.



신안군이 증도면 기점·소악도에 12개의 작은 예배당과 순례자의 길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기점 순찰장의 '베드로의 집'. <신안군 제공>

주민들은 1년에 2회씩 열리는 주민대학을 통해 스스로 자생 능력을 키우는 중이다. 마을에서 운영하게 될 게스트하우스와 마을식당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무인 카페와 마을박물관, 특산물과 기념품을 제작해 판매할 계획이다.

윤미숙 신안군 가고싶은 섬 팀장은 "작고 아름답고 이색적인 열 두개의 미술 건축물을 꼭 교회로만 지칭하지는 않는다"면서 "가톨릭, 불교, 이슬람 등 특정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쉬고 걸으면서 둘러보는 명상의 장소로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영광군, '불갑사 약전차' 발굴·복원 박차 맛과 향 탁월 시제품 시음회...산업화 앞장

영광군이 왕에게 진상할만큼 맛과 향이 뛰어났던 '불갑사 약전차' 발굴·복원과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광군은 '불갑사 약전차 발굴·산업화 용역 최종보고회' (사진)를 불갑사 설선당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군은 최종보고회는 앞서 지난 6월21일 군청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의 최종 결과물 보고와 약전차 시제품을 시음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약전차는 지방에서 울리던 공물을 기록한 세종실록지리지의 '토공(土貢)'란

에 영광의 작설차로 표기된 것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왕에게 올린 진상품이었다. 이 차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효를 나타내는 둥근 모양의 차라는 뜻을 품고 있다. 영광군은 여러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고, 차의 약성 효능과 미적인 측면에서 구세대와 신세대 모두를 매료시킬 수 있어 차문화 전통계승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광=이준윤 기자 jylee@

## 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신안군이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에 나섰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에 따른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안군은 농촌진흥청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사업에 최종 선정돼 2년(2020~2021년)간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성분석센터가 설치되면 320여 잔류농약 사전 분석으로 신안군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농가 불안감이 해소되고 농산물 판매 활성화로 주민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PLS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작물에 미등록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 에 대해서는 농약잔류량을 일률적으로 적용,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한 제도다.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사업은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 보호와 푸드플랜 정책 안전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전국 35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2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시군이 선정됐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확정

군, 이행합의 각서 공식 체결  
국내 최고 종축장 2027년 완공  
매년 200억원 지역경제 효과도  
함평군이 지난 23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이행합의각서를 공식 체결하면서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이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이전후보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10개월여 만이다. 함평군에 따르면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지난 23일 국립축산과학원 원주 본원에서 최종 순 축산자원개발부 부장, 배운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 등 이전사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이행합의각서에 나란히 서명하고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에 최종 합의했다. 이주민 지원 대책 등 이점이 일부 존재했지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 함평,장성,담양) 등 정치권에서 충실한 지원사격을 해주면서 10개월여 만에 큰 잡음 없이 이전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은 이주민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부터 토지매입 및 보상을 실시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안에 이전 비용 산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까지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다. 함평군도 이주 지역민 갈등조정, 이주민 지원 대책, 주변 방역대책 등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는 지속가능한 미래 축산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종축장"이라며, "계획대로 오는 2027년까지 이전이 잘 마무리되면 함평은 매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누리며 전업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축산연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 이전이 확정된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4개 부서(가축개량평가, 낙농, 양돈, 조지사료) 20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스마트 축산연구기관으로, 오는 2027년까지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일원(612ha)에 모두 이주한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 무안군, '식량작물 평가회' ...고구마 등 품종 확대 노력

무안군은 지난 26일 (사)쌀전업농무안군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선도농업인,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작물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식량작물 시범사업인 고구마의 전 과정 기계화 모델구축 시범사업의 현장 평가, 내년도 무안군 정부매입 품종인 새정부벼 증식포장 현장 평가, 논 타작물(콩) 재배 농가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벼 연구시험포장에서 올해 벼농사 작황 및 품종 특

성에 대한 강의, 주요 병해충 방제 요령 등이 순서대로 진행됐으며, 발작물 기계화와 신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토론을 통해 내년 농번기 농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무분별한 외래종자의 사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무안군은 벼, 고구마 등 식량작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핑크물리갯벌축제' 개최

함평군이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황금빛 낙조로 유명한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 핑크물리갯벌축제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여촌어협협회가 주최하고 돌머리 여촌체험마을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함평에서 처음 열리는 갯벌축제다. 지난 2017년부터 각종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함평 핑크물리와 친한 경 생태갯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는 명소로 핑크물리갯벌 인기를 끌고 있어 축제장 내 핑크물리 정원을 따로 조성했다. 또 국화, 억새 등 100여 종의 가을꽃이 식재된 기존 주포 노을정원 역사밸리존도 인근에서 운영한다. 맨손 물고기잡기 체험행사는 10월4일 오후 3시와 5일 오후 2시 2회만 진행하며, 소망연 날리기 행사는 4-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 동부 센트레빌,상가 사정상 급매 | 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급매 - ~~9억~~ → 7억원
- 임대 -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350만원

### 덕남동,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권

- 덕남동 임야, 992m<sup>2</sup>,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